

한국 수화언어의 특징과 수화 성경 번역의 실제¹⁾

안영희*

1. 들어가는 말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농인들에게 어떻게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할 수 있게 하고 하늘의 기쁨을 심어줄 수 있을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농인들이 아름다운 손짓으로 찬양하는 수화²⁾는 하나님이 예비해주신 농인의 언어다.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모두들 음성언어로 웃고 대화할 때, 농인 자신은 듣지 못하고 내용을 알지도 못해 홀로 소외감을 많이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농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수화라는 언어를 예비해 주셨다. 눈으로 확인함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농인에게는 수화가 제1언어이기 때문에 성경도 ‘수화 성경’(비디오, DVD)을 번역하는 것이 시급하며 성경 전권이 하루 빨리 수화로 번역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 수화의 특징을 살펴보고, 실제로 한국 수화로 성경을 번역해 보고자 한다.

2. 한국 농인 교회의 현실과 수화 성경

우리나라에는 농인들을 위한 기독교 교회가 160여 곳이 넘으며 180여 명의 농인을 위한 교역자가 있다. 1996년 10월 3일에는 전국의 약 3천 명의 농인 기

*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 수화통역학과.

- 1) 이 글은 대한성서공회의 “제4회 성서 번역 워크숍”의 강의를 위하여 집필하였으나, 여기서는 강의를 위하여 집필하였던 부분은 대폭 줄이고, “한국 수어의 특징과 성경 번역의 실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하였다. 줄인 부분은 『제4회 성서 번역 워크숍 자료집』(서울: 대한성서공회, 2009), 296-312 참조.
- 2) 수어(手語: sign language)는 농인들이 두 손으로 표현하는 수동(手動) 언어를 지칭한다. 당연히 수화, 얼굴표정, 지화, 제스처 등을 포괄해서 표현되는 특수한 언어 형태인 것이다. 반면에 수화(手話: sign, signing)는 단어로서의 성격이 강할 뿐 아니라 또한 동사로서의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독교 신자들이 모여서 성대하게 ‘한국농아선교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06년에는 한국농아선교 60주년 연합선교대회가 열렸고, 아시아농아선교대회 외에도 세계농아선교대회 등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볼 때 대단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입으로 말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롬 10:17)’고 하였다. 그러나 농인에게는 ‘믿음은 보는 것을 통해서 나며 손으로 말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 농인은 듣고 말할 수 없기에 듣지도 입으로 시인하지도 못한다. 이로 인해 복음 전파에 가장 어려움을 지닌 장애인이 청각장애인이자. 복음의 가장 중요한 ‘들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아직도 한국의 농인 교회의 농인 성도들은 교육의 기회를 접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농인들이 많이 있으며, 특히 연령대로는 40대 이상의 경우에는 미취학(문맹) 농인들이 많다. 이들은 과거 어려웠던 시절에 태어나 마땅히 배울 만한 곳도 없이 집에만 틀어박혀 집안 잔일을 도와주며 자라왔다. 자신들의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인 수화를 배울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정보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누구나 평범하게 누리는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교육면에 있어서 배우지 못한 한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누구보다도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편이다.

농인에게 있어서 배운 수준과 신앙 수준은 거의 비례한다. 수화로 의사소통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농인 목사가 진행하는 설교 말씀을 70% 정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 성장은 꾸준한 교육과 지도를 통해 이룩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수화를 잘하는 농인이나 교육을 제대로 받은 농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설교 내용을 100% 이해하지는 못한다. 그것은 수화가 주는 단순함과 여러 가지 뜻을 하나의 수화로 사용함으로써 오는 불명확성으로 인해 뜻을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관한 시청각 자료의 활용과 개발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청인들을 대상으로 한 시청각 자료는 많이 있지만 농인들을 위한 자료는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³⁾ 특히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성경이 아직 수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본문은 예배 때마다 예배 인도자에 의해서 번역되어 전달되고 있다.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수화 성경 본문이 없기 때문에 한국어 문자를 잘 해독하지 못하는 농인들은 복음을 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한국어를 문자로 읽을 수 있다 해도 대다수의 농인들의 어휘 능력은 아주 제한적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정도의 농인들의 한국어 이해 수준은 보통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의 한국어 이

3) 안영희, “한국수화 성경의 필요성”, 『성서한국』 54:1(2008), 7-10에서 재인용.

해 정도라고 한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농인을 문장력 부족으로 인해 일반인에 비해 능력이 떨어지는 부류로 여기고 있다. 한글로 표현하는 문장력 부족은 많은 농인들이 안고 있는 고민이며 농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하다. 농인들이 한글 문장 구사가 부족한 이유는 듣지 못함으로 인해 소리언어와는 자연히 멀어지게 되며 손짓으로 하는 수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시각언어를 모어로 받아들여지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수화는 한국어와 전혀 다른 독특한 문법적 구조를 지니며 한국어가 지닌 복잡한 문법을 간단명료하게 생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화표현에 익숙해있는 농인들이 한국어로 문장을 표현할 때 한국어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자주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래는 강주해⁴⁾의 『농아인 그들은 누구인가』에서 발췌한 농인의 문장이다.

옛날에 내가 송곡 초등학교에 입학할 그 때 정상인반은 실망하겠습니다. 나도 농아자 되고 무엇하고 눈물을 심심했어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보고 양각하고 양심을 알아합니다. 대전원명학교에 입학 되고 선생님께서 공부를 가져다고 잘 합니다. 나는 고등학교에서 졸업식 12년 동안 합니다. 다시 목공부 취직되었다. 천성원에 때 목공부로 일이 잘해 생각하는 월급날 받고 좀 부족하고 기분 앓고 퇴직되었다. 엄마 시골에서 일이 수도 많이 있으니 나도 생각하는 얼마 동안 알고 충성으로 십다고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일이므로 없다고 심심하고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나도 모두 일이 고생을 어려운 무엇도 괜찮습니다.

위의 글은 농인사회에서 비교적 잘 쓴 편으로 평가받는 문장이다. 청인(聽人)이 읽어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과 한국어문법상의 오류가 보인다. 보통의 지능을 지닌 청인이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제2 외국어로 6년 정도 배운 영어나 불어를 문장으로 써내려갈 때, 한국어문법과는 다르므로 미숙하고 숙달되지 않아서, 문법적인 오류들이 군데군데 눈에 생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어는 농인들에게는 2차 언어 곧 일종의 외국어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화로 성경을 번역해 주는 것은 모든 농인들이 자기들의 일차 언어로 성경을 접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일이다.

3. 수화의 정의⁵⁾

4) 강주해, 『농아인 그는 누구인가』(서울: 농아사회정보원, 2002).

5) 최상배, 안성우 공저, 『한국수어의 이론』(서울: 서현사, 2003), 11-12 재인용.

모든 인간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청인(聽人)들이 구어를 사용하듯 농인이 수화를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⁶⁾. 김승국은 수화는 농인 사회에서 사용되는 의사소통의 양식으로, 농인들에 의해 창조되고 끊임없이 재창조되는 일종의 언어라고 하였다.⁷⁾ 수화는 음성체계가 아니라 시각-운동(visual-gesture) 체계이므로 수화의 각 기호⁸⁾는 시각에 의해서는 식별되나 청각으로는 식별할 수 없으며, 음성언어와 같이 지각되자마자 영원히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수화의 각 기호는 형(形)과 의(意)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의 변형으로 문자의 자모를 나타낸다. 따라서 글자마다 모양은 있으나 의미가 없는 지문자(Finger spelling)와는 구별되며, 중국문자나 이와 친족관계를 가지고 있는 언어와 더불어 고립어의 특징이 있다.

엄미숙⁹⁾도 한국수화는 한국어와 같이 의미형태소에 조사나 어미와 같은 어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문법 형태소가 붙음으로써 문법적 기능을 하는 첨가어(부착어, 교착어)가 아니라,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형태소의 발달이 거의 없고 낱말의 말이 독립되어 말의 위치에 따라 문법적 기능을 하는 고립어와 유사하다고 하였다.

분트(Wundt)는 여러 나라의 수화를 분석한 결과 모든 수화에 일반적인 특성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외현 동작으로 개념을 나타내는 방법에는 기본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지사(direction)와 모방(模倣; imitation) 즉 수화의 기호에는 두 가지 기본 기호인 지사기호(direction signs)와 모방기호(imitation signs)가 있고, 모방기호는 모사(模寫; coping), 표현(representing), 상징(symbolizing)으로 나누어진다.¹⁰⁾

4. 언어학적 측면에서의 수화의 가치¹¹⁾

1960년대 윌리엄 스토클(William Stokoe)¹²⁾는 수화가 어휘항목, 문법, 명제

6) V. Fromkin and R. Rodman, *An introduction to Language* (New York: Harcourt Brace and World, 1993).

7) 김승국, “한국수화의 심리언어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1983).

8) 김승국(1983)의 기호(記號)는 sign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화어휘 또는 수화를 의미한다. 본서에서는 선행연구와 같은 방식으로 기호는 sign을 의미하며, symbol은 상징의 의미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9) 엄미숙, “한국수화의 통사론적 분석”,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1996).

10) 김승국, “한국수화의 심리언어학적 연구”, 25-34.

11) 최상배 안성우 공저, 『한국수어의 이론』, 재인용.

12) William. C. Stokoe, *Sign Language. Structure: An Outline of the Visual Communication*

를 무한하게 생성하는 기능에서 언어가 필요로 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시킨다는 주장을 증명해 보였다. 그것이 바로 ‘수어구조’(Sign Language Structure)이다. 스토크 이후 미국에서는 수화에 관한 연구가 수화학(Sign Linguistics)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수화학은 일반 언어학 분야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수화가 단순한 몸짓이 아닌 언어라고 하는 의미는 문화적, 교육적, 심리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첫째, 문화적 의미는 사회언어학적 의미와 상통하는 것이다. 사회언어학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언어로서의 수화의 위치를 주장 하고 있다. 즉 이들은 농인에 의해 형성된 언어적 공동체(linguistic community)를 인정하여 수화를 언어학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의 농인사회에서 그들의 모어인 수화를 중시하는 것은 소수 민족이 각기 모국어를 중시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둘째, 수화가 지니는 언어로서의 특징이 규명되면, 수화가 교육활동에서 적절한 의사소통 도구로 밝혀져서, 교육활동에서 수화가 더욱 광범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셋째, 수화가 지니는 언어로서의 특징이 규명되면 수화를 사용하는 농인의 심리가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 즉 장애인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004년 1월15일에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에서는 수화언어 정책 반영을 정부에 요청하는 “수화는 언어다”라는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문에서는 수화언어의 독립성을 선언하면서, “수화언어는 농인들의 언어이므로 일반인이나 전문가들이 농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수화를 만들거나 수화언어 체계를 세우는 것을 배격한다. 또한 농인의 의사소통양식과는 다르게 표현하고 활용하는 것을 배격하며, 오로지 농인의 손에 의하여 창조되고 사용되며 이를 재생산하는 것을 기초로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또한 “수화언어를 기초로 모든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수립된 정책은 사회 전반에 걸쳐 일반언어와 동등한 수준에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¹³⁾ 수화는 소수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독자적인 하나의 언어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수어로 번역하는 일은 하나님 의 말씀을 모두에게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5. 수화의 대조언어학적 통문화성 특징¹⁴⁾

Systems of the American Deaf (Linstok Press, 1960).

13) 한국농아인협회 선언문, “수화는 언어다”(한국농아인협회 2004 기자회견자료집).

14) 최상배, 안성우 공저, 『한국수화의 이론』, 191, 재인용.

수화의 대조언어학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김승국¹⁵⁾은 한국과 일본과 미국 수화 간의 통문화성을 알아보기 위해 3국의 수화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수화 어휘 563개, 일본수화 어휘 382개, 한국 수화 어휘 742개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한·미·일 수화의 동형, 분류사, 이형 기호의 비교(f는 사례 수) >

수 화	한·미·일		한·미		한·일		미·일	
	f	%	f	%	f	%	f	%
동 형	53	26.11	135	23.98	212	55.50	64	31.53
분류사	5	2.46	47	8.35	30	7.85	14	6.90
이 형	145	71.43	381	67.67	140	36.65	125	61.58
계	203	100	563	100	382	100	203	100

그 결과를 위의 표로 나타낸 것을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수화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1913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설립된 제생원 맹아부에서 농인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면서부터 일본의 수화가 한국 농인들에 의해 사용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파리의 수화와 파리에서 가져다 발전시킨 미국 수화와의 동형수화는 약 25%밖에 안 된다. 그 수가 한미 및 미일 간 동형 수화의 수에 가깝다. 한일 동형 수화는 55%이다. 문화의 보편성이 한미 간이나 미일 간보다 한일 간에 더 많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각 나라의 수화가 비슷하고 이형이라 할지라도 모양을 묘사한 사상적인 수화는 유추하여 그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수화는 음성언어와는 달리 통문화성이라는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6. 한국 수화언어의 특징

6.1. 한국 수화

한국 수화는 우리나라 농인들의 몸짓 언어이자 자연적인 언어이며 농인인 사용자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오랜 기간 개발되어 온 언어이며, 일반적인 언어가 갖고 있는 모든 특징인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부호를 사용하는 규칙적 통제

15) 김승국, 『한국수화의 심리언어학적 연구』, 49-50.

체계를 갖고 있다.

문법과 문장 구성과 숙어적 사용 또한 형태와 지역적 다양성들을 갖고 있는 한국 수화는 우리나라 농 사회 속의 농인들을 통합하는 공유의 언어이며 농인들의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이다. 손으로 표현하는 내용을 눈으로 파악하는 시각화(視覺化)된 언어로서 수화로 의사소통을 할 때는 농인들의 정면에서 마주본 채 해야 한다. 시각화된 언어이기 때문에 수화를 하는 동작 하나하나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해야 하며, 청인(聽人)의 음성 언어(한국어)에서 억양과 말투에 따라 말을 길게 하고 짧게 하는 데 따라서, 그리고 말꼬리를 올리고 내리는 데 따라서 문장의 의미 자체가 달라지듯이 수화 역시 손의 높낮이와 손가락의 펴고 쥐는 정도, 이동의 정확도와 동작하는 횟수와 접촉 부위, 그리고 손의 위치 등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

한국 수화 내에서 부호들은 특별한 손의 움직임과 변형들이 있으며 이것이 이 손의 움직임과 변형들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얼굴 표현에 의해서 바뀌어진다. 이 몸짓들과 부호들이 수화이다. 청인(聽人)들은 음성을 통해 자신의 감정 및 억양을 표현하듯이 농인들은 얼굴 표현으로 나타내며 수화는 곧 표정이 풍부하고 생생하게 살아 있는 독특하고 특별한 언어이다.

음성 언어에서 억양이나 말투, 음색과 눈짓 등과 같은 청인의 비언어적 메시지들이 언어적 메시지 이상으로 송신자의 뜻을 전달하는 데 주요한 기능을 하듯이, 시각언어인 수화에서 표정과 제스처는 손의 동작만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미묘한 내용들을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표정과 제스처가 생략된 수화는 진정한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수화는 언어로서의 본질적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농인의 모국어로서 나라마다 다르며 음성언어와 구별되는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 외국어를 그 나라의 문화적 맥락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듯이 수화를 배우는 사람들은 농인들이 사용하는 수화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세심하게 표현해야 한다. 농인에게는 시각언어인 수화가 1차 언어인 모국어가 되며 한국어는 2차 언어가 되는 것이다. 수화에도 자연수화와 문법수화가 있다. 자연수화와 문법수화(한글 대응식 수화)에 대한 내용은 이와 같다.

- (1) 자연수화: 농인들의 독특한 문화와 사고방식을 반영한 언어.
- (2) 문법수화(한글 대응식 수화): 한국어문법체계를 기초로 수화단어를 한국어의 어순에 대응시킨 것.

이에 따라 농인의 언어로서 수화는 자연수화를 말하는 것이므로 언어로서의 수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6.2. 한국수화의 분류¹⁶⁾

지금까지는 소위 문법수화가 한국수화의 진정한 모습인 것처럼 인식되어 한국수화가 왜곡되어 왔다. 이는 대부분의 교수활동이 농학교 중심의 문법수화로 이루어져 농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문법수화에 더 노출되고, 청인들의 수화학습 또한 문법수화에 기초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자연수화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하나의 이유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문법수화가 농학생에게 가장 적절한 의사소통 양식인지에 대한 반성이 일기 시작하였다. 안성우¹⁷⁾는 문법수화가 구어에 비해 생략이 많아 불충분한 언어자극을 제공하고, 학습 가능성과 자연성이 결여되어 교수활동에 적합한 매체가 아니며 언어로서의 특징도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석동일은 한국수화를 자연수화와 문법수화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¹⁸⁾ 그는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수화를 구성 하는 핵심적인 요소를 수화 낱말(sign words), 지문자(finger spelling), 몸짓 요소(gesture; 안면 표정, 눈의 동작, 몸의 동작 등이 포함되어 수화 어휘의 의미를 보충한다.), 수화 표식(sign markers; 수화의 활용, 시제, 낮춤과 높임, 조사 등)을 들었다. 또한 변지원¹⁹⁾은 자생성 수화(수화를 알지 못하는 농인이 어떠한 사물, 상황, 자신의 의사, 감정 등을 표현하게 될 때 나타내는 동작으로 지역이나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 자연수화, 문법성 수화, 몸짓, 지문자 등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혹자는 수화를 전통적 수화, 동시법적 수화, 중간형 수화로 분류하기도 한다. 배들연²⁰⁾에 의하면 ‘자연수화’는 ‘농식수화’라고도 하며 농성인들 사이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성, 습득되어 온 것으로 음성언어의 어순에 일치되지 않는 독자적 문법 형태의 특성을 지닌다. 그리고 문법수화는 문자언어의 어순에 따라서 필요한 문법식 기호와 단어를 표현하며 대부분의 청인 교사나 부모들이 사용하는 수화이다. 최성규²¹⁾는 한국표준수화(자연수화에 기초한 표준수화)와 국어식 문법수화로 구별하고 있다.

16) 최상배, 안성우 공저, 『한국수어의 이론』(서울: 서현사, 2003) 13-16, 재인용.

17) 안성우, “문법수화가 언어인가”, 『난청과 언어장애 연구』 20:2 (1997), 51-67.

18) 석동일, “한국 수화의 언어학적 분석”,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1989), 29-39.

19) 변지원, “자연수화의 문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1992).

20) 배들연, “수화에 대한 청각장애학생과 교사 및 부모의 태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2001).

21) 최성규, 『장애아동 언어지도』 (대구: 한국언어치료학회, 2001).

그러나 최상배·안성우는 자연수화와 문법수화로 구분하는 지금까지의 구어 구분 의견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분류는 청인 입장에서 청인 위주로 명명된 것이며, 본래 수화의 의미를 왜곡시켰다고 보기 때문이다.²²⁾ 우리나라에서 농아인의 진정한 언어는 자연수화뿐이므로 필자는 강창욱²³⁾의 견해를 받아들여 지금까지 자연수화로 불린 용어를 한국수화로 명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그리고 문법수화를 건청수화로 부르자는 견해가 있으나²⁴⁾, 청인의 수화가 반드시 문법수화일 필요는 없으므로 문법수화는 현재대로 문법수화 또는 방법적 수화²⁵⁾로 부르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하고 있으며, 최상배·안성우는 수화를 농성인들이 모국어로 사용하는 자연발생적 언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화와 문법수화는 구성 요소는 비슷하나 완전히 다른 의사 소통 수단이다.

즉, 수화는 농인 사이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어 이들의 사고와 생활을 반영하는 독자적인 언어체계이지만, 문법 수화는 한국어의 문법체계로 수화의 단어를 배열하는 인공적 의사소통 수단이므로 언어로서의 특징을 가지지 못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는 수화에 대한 연구와 인식이 부족하여 문법수화를 농아인의 언어인 것처럼 인식하였다. 다행히 수화에 관한 많은 연구가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면서 수화의 언어로서의 가치가 인정되고 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수화와 문법수화를 어떤 의미로 수용할 것인가이다. 수화와 문법수화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공유하는 부분이 있으며 비록 문법수화가 한국수화 발달의 장애요소이기는 했으나, 의미의 명료한 전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다. 수화와 문법수화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연언어성의 유무이다.

최상배·안성우는 한국수화를 문법수화와 자연수화로 구별하는 대신 다음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로 분류하였다.

① **수화어휘 (sign word):** 수화를 이루는 각 단어(sign)를 가리키며 기존의 수화(手話)와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sign과 sign language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전자를 수화어휘 또는 수화로, 후자는 수화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수화어휘는 품사나 문장성분을 나타내는 조사나 어미 활용 없이도 수화 구문 안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22) 예를 들면, 변지원(1992)은 수화를 구분할 때 문법성 수화를 Korea Sign Language라는 의미로 사용함으로써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수화가 문법수화임을 지지하고 있다. 변지원, “자연수화의 문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단국대학교, 1992).

23) 강창욱, “문법수화가 언어인가에 대한 토론”, 「수화언어의 미래를 생각하는 세미나」, 제2회 공개연구발표회 (한국수화연구회, 2000), 27-30.

24) 강창욱, “문법수화가 언어인가에 대한 토론”, 27-30.

25) 최근에는 문법수화라는 용어보다 방법적 수화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듯하다. 이러한 이유는 수화에도 문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필자의 견해는 문법수화라는 용어보다는 방법적 수화가 더 적절한 용어라고 본다.

② **지화(finger spelling)**: 수화어휘에 없는 수화나 고유명사를 표현할 경우에 사용되며, 지화에는 지문자와 지숫자가 있다.

③ **비수지신호(nonmanual signal)**: 수화표현을 할 때 수화문의 정확한 표현을 위해 얼굴 표정이나 몸의 움직임으로 의미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며 음성언어의 초분절음소(억양, 강세, 리듬 등)에 해당한다. 비수지신호는 의미론적 의미뿐만 아니라 구문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비수지 동작이라고도 한다.

④ **수화표식(sign marker)**: 원래 문법수화를 고안한 본스타인(Bornstein) 등이 사용한 용어로 자연수화 상황에서는 별로 사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수화표식의 다양한 형태는 자연수화에 많은 영향을 미쳐 자연수화 속에서도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Gustason, 1997).

따라서 자연수화와 문법수화는 서로 대립된 관계로 보기보다는 상보적 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수화표식은 한국수화에도 영향을 미쳐 의미의 정확한 표현을 도와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예를 들면 “~에게”, “~하는 줄” 등의 표현에서 사용된다.

⑤ **관용수화(idiom)**: 음성언어의 idiom과 같은 관용적 표현을 의미하는 것이다. 언어에 관용표현이 있다는 것은 언어가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한다는 속성을 나타낸다. 한국수화 역시 관용수화 표현이 있다.

그러나 문법수화에는 관용표현이 없다. 왜냐하면 문법수화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언어로서의 특징이 없기 때문이다.²⁶⁾

6.3. 한국 수화 표현의 특성들

농인의 수화 표현 특성을 보면 [귀신] : 귀신과 악마를 뜻하는 수화 단어 표현을 농인사회에서는 [감쪽같이 사라지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또 하나의 예로는 [얼굴커지다, 작아지다] → [유명해지다, 인기가 줄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관용 표현에 있어서도 아래의 농인사회에서는 수화 관용 표현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 있다.

- 한국어 관용 표현 (한국수화 관용 표현)
- 옛 장수 마음대로 → (자기 + 요리 + 마음대로)
- 손이 맞다 → (생각 + 박수 = “알아서 하다”)

26) 최상배, 안성우 공저, 『한국수어의 이론』.

그 외에도 []안은 수화로 하는 동작이며 그 뜻은 “의 뜻을 의미할 때 사용 하는 것이다.

- [깨끗하다 + 주다] → 솔직히 말하다. 솔직하게 이야기 하겠다.
- [눈 + 싸다] → 잘 못 보다.
- [눈물 + 없다] → 용서할 수 없다, 용서하지 않다
- [생각 + 도망가다] → 깜빡 잊어버리다.

● 수화 표현의 손동작이 같은 말들의 예

- 걱정하다 := 괴롭다, 시름, 염려
- 늦다 := 더디다, 서서히, 지각하다, 지체하다, 천천히, 느리게
- 더욱 := 더, 더구나, 추가, 하물며
- 독생자 := 외아들
- 드리다 := 바치다, 봉사하다
- 맞다 := 참, 진짜, 옳다, 정말, 사실
- 모양 := 모습, 상태, 상황, 형태
- 바라다 := 소원, 원하다, 싶다, 욕구
- 보통 := 대개, 대체로, 일반, 정상, 평범히
- 아주 := 너무, 대단히, 매우, 무척, 몹시
- 안녕하세요 := 안녕,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 외롭다 := 쓸쓸하다
- 오직 := 만, 뿐, 단지, 다만, 오로지, 외(예: ‘외아들’=“오직+아들”)
- 이별 := 헤어지다. 떠나다, 작별
- 일하다 := 직업, 근로, 작업
- 자세히 := 깨, 꼼꼼히, 상세히, 정밀히, 치밀히, 세밀하다
- 충분히 := 넉넉히, 여유, 만족, 자신 있게, 충족, 풍부히, 풍성히, 떼떽하다.
당당하게, 만만하다
- 편리하다 := 간단하다, 단순하다
- 허락하다 := 승낙, 수락, 승인, 허용, 허가

● 한국수화의 표현 방법²⁷⁾

27) 한국표준수화 규범 제정 추진위원회, 『한국 수화 문형사전』(서울: 국립국어원 한국농아인협회, 2007), 참조.

- ① 수화로 표현하는 문장에는 ‘~이다’, ‘~입니다’는 사용하지 않는다.
- ② 수화의 수향(手向)에서 상대방이 자신 쪽을 향해 무엇을 ‘주다’고 할 때에는 ‘주다’라는 수화의 방향을 자신 쪽으로 하여 ‘받다’ 수화를 사용하게 된다.
- ③ ‘비가 오다’, ‘눈이 내리다’, ‘바람이 불어 온다’ 등 수화의 경우 그 동작 안에 ‘오다’를 의미하는 뜻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가 오다=비’, ‘눈이 내리다=눈’, ‘바람이 불어 온다=바람’ 수화로 해주면 된다.
- ④ 수화에 없는 단어는 한글 지문자로 표현해준다.
- ⑤ 수화에서 일반적으로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대신 상대방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에 표정과 몸짓으로 높임을 나타낸다.
- ⑥ 수화에서 ‘당신’의 기호는 ‘너’의 높임으로 표현한다.
- ⑦ 존댓말로 대답하는 경우에는 ‘예’ 수화를 사용하지만 보통 때는 ‘알다’라는 수화를 사용한다.
- ⑧ 의문문의 경우에는 의문스러운 표정 및 고개를 약간 옆으로 기울여서 의문스러운 표정으로 해준다.
- ⑨ 물음표의 경우에도 묻는 표정을 보인다.
- ⑩ 수화에서 상대방의 이름 뒤에 존경의 뜻을 나타내서 쓰는 ‘000씨’에서 “~~씨”의 기호가 없으므로 이때는 표정이나 몸짓으로 나타내준다.

7. 한국 수화와 한글대응식 수화의 성경 번역의 실제

요한복음 3:16-21을 중심으로 하여 성경 본문 아래에 ㉠은 한국 수화로, ㉡은 한글대응식 수화(문법식 수화)로 의역해보면 아래와 같다.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	하나님+세상	이+같이+사랑+주시다+때문에	외아들+주시다
㉡	하나님+세상	이+같이+사랑+하다	외아들+주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	이유+하나님+믿다+사람+각각	망하다(=무너지다)+없다	
㉡	이(그,저)+그+믿는+사람+각각	망하다+아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	영원한+생명+소유하다+위하여+목적		
㉡	영원한+생명+소유하다+하다+위하여+하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 ㉠ 하나님+그+아들+세상+보내다+이유
- ㉡ 하나님+그+아들+세상+보내다+것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 ㉠ 세상+심판+목적+아니다
- ㉡ 세상+심판+위하여+하다+아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 ㉠ 하나님+통하여 세상+구원 받다+가능하다+목적
- ㉡ 그+ 때문에 세상+구원 받다+하다+위하여+하다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 ㉠ 하나님+믿다+사람 심판+받다+없다+되다
- ㉡ 그+믿다+사람 심판+받다+아니+하다+것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 ㉠ 믿다+아니다+사람 하나님+외아들+이름
- ㉡ 믿다+아니다+사람 하나님+외아들+이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 ㉠ 믿다+아니다+때문에 이미+심판+받다+끝
- ㉡ 믿다+아니다+ 때문에 이미+심판+받다+것+~입니다

19절 그 정죄는 이것인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 ㉠ 그+결정하다+죄+이+곧 빛+세상+곳+오다+그러나
- ㉡ 그+결정하다+죄+이+곧 빛+세상+곳+오다+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 ㉠ 사람들+자신+행동+나쁘다+ 때문에
- ㉡ 사람들+자신+행동+나쁘다+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 ㉠ 빛+보다 어둠다+더+사랑하다+이유+때문에
- ㉡ 빛+보다+어둠다+더+사랑하다+것+때문에

20절 악을 행하는 자 마다 빛을 미워하여

- ㉠ 나쁘다+행동+사람+각각 빛+싫어하다+때문에
- ㉡ 나쁘다+행동+사람+각각 빛+미워하다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 ㉠ 빛+가운데+들어오다+아니다
- ㉡ 빛+곳+오다+아니다+ 때문에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 ㉠ 이유 그+행동 들키다+때문에
- ㉡ 이(그,저) 그+행동 나타내다+하다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 ㉠ 참+뜻+따르다+사람 빛+곳+오다+가능하다 이+이유+그+행동
- ㉡ 참+뜻+따르다+사람 빛+곳+오다+ 때문에 이(그,저)+그+행동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 ㉠ 하나님+안에서+행동+이유 나타내다+위하여+목적
- ㉡ 하나님+안에서+행동+것 나타내다+위하여+하다+~이다(~입니다)

17절의 의역한 부분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은 한국수화로, ㉡은 한글대응식 수화(문법식 수화)로 의역한 부분에서 한국수화와 한글대응식수화로 해석한 부분들을 보면 차이점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 ㉠ 하나님+그+아들+세상+보내다+이유
- ㉡ 하나님+그+아들+세상+보내다+것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 ㉠ 세상+심판+목적+아니다
- ㉡ 세상+심판+위하여+하다+아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 ㉠ 하나님+통하여 세상+구원 받다+가능하다+목적
- ㉡ 그+때문에 세상+구원 받다+위하여+하다

성경 본문을 수화로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음성언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수화만의 특징이자 수화 문법의 완성도를 표시하는 기능인 ‘공간이동’이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문장을 수화로 의역하면 ‘하나님+당신+사랑’이라는 형태로 나타내게 된다. 그러나 공간 이동이 없이 제 자리에서 수화문만으로 표현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의미인지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인지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수화에서는 조사가 생략되기 때문에 주어와 목적어 표현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는 공간 이동이 중요하며, 화제화(話題話)로 인한 어순도치가 있을 수 있지만 공간이동과 함께 비수지신호(얼굴 표정)가 문장의 문법적인 기능을 완성하게 하는 것이다.

8. 한국수화 성경 번역에서 비수지신호의 중요성

사람들은 언어만이 아닌 몸짓과 얼굴표정 그리고 몸의 자세와 공간의 사용을 통해서도 의미를 전달한다. 농인들은 시각이 특별히 발달한 사람들로서 그들에게 가장 편리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수화를 사용한다²⁸⁾.

이처럼 수화는 농인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의사소통수단이며 농인들의 제1의 언어이며 음성에서 유래된 것이 아닌 하나의 독립된 언어이다. 다시 한 번 말하자면 문화가 한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을 통하여 창조된 공동의 생활양식이며²⁹⁾, 언어는 특정한 사회의 문화적인 산물임과 동시에 문화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언어는 그 사회의 관습이나 전통, 생활양식과 정신세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농문화는 농인이 가지는 독특한 속성을 가지는데 농인들의 제1언어인 수화와 농사회, 농교육기관, 청인과 구별되는 몸짓 의사소통, 농인끼리의 결혼과 같은 요소를 포함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수지신호(얼굴표정)이다. 비수지신호는 수지신호와 함께 사용되는 얼굴 표정·머리의 움직임·시선·입모양·모의 움직임 등으로 정의되며 농인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수화의 손동작 못지 않게 비수지신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수화의 형태론과 통사론 등과 같은 문법적 역할을 비수지신호가 담당하기 때문이며³⁰⁾, 농인의 의사소통에서 사용되는 비수지신호의

28) 아베야스시, “농인의 언어적 권리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2003) 재인용.

29) N. Geertz,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New York: Basic Books, 1973).

실현은 형태론과 통사론의 언어학적 특성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³¹⁾.

청인이 음성을 통하여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수준 등에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하는 것과 같이 농인이 시각언어를 통해 수화의 음운론(수화소³²⁾과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수준에서 언어를 습득하고 있으므로 청인과 농인의 언어 습득은 음성과 시각에 의존하는 정보처리 방법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유사한 수준에서 언어를 습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음성언어에서는 음성신호만 언어를 구성하고 있는 것에 반해 수화는 수지신호와 비수지신호³³⁾로 언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³⁴⁾.

이처럼 한국수화는 국어와 달리 관용 표현에 있어서 단어 하나가 수위, 수동, 수향 등의 수화소, 즉 어형의 변화를 가져오거나 얼굴 표정과 같은 비수지신호³⁵⁾를 사용하여 의미의 변화를 가져오며, 이를 많은 농인들이 즐겨 사용함

30) C. Baker and R. Battison, *Sign Language and the Deaf community* (National Association of the Deaf, 1993); E. S. Klima and U. Bellugi, *The signs of Languag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9); Liddell, S. K., *Non-manual signals in American Sign Language: A Many Layered System*, Paper Presented at the National Symposium, on Sign Language Research and Teaching (Chicago, 1977).

31) 윤병천, “한국수화의 비수지신호에 대한 언어학적 특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2003).

32) 수화소(手語素, *chereme*)는 Stokoe에 의해 사용된 용어로 음성언어의 음소(phoneme)에 상응한다. Stokoe(1976) 등은 수화소에는 수형(19), 수위(12), 수동(24)이 있다고 하였다. 그 후 Battison(1978)에 의해 장향(掌向)이 추가되었고, Klima와 Bellugi는 Stokoe의 세 요소를 주매개변수(major parameters)라 하고, 여기에 손의 방향(orientation), 손의 접촉점(contacting region), 손의 배열(hand arrangement)을 덧붙여 부매개변수(minor parameter)라 하였다. 부매개변수는 수형의 하위분류이다. 즉, 수형이 같더라도 방위, 접촉점, 손의 배열(양손관계)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구별된다(석동일, 1989).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ASL의 수화소를 분석할 때 수형(handshape), 수위(location), 수동(movement), 장향(orientation), 비수지신호(nonmanual signals)의 다섯 가지로 본다(Valli, Lucas, 2000).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김승국(1983)이 수형(30), 수위(23), 수동(36), 수향(手向, 20), 체동(體動, 20)으로 분류하였고, 석동일(1989)은 수위(40), 수형(44), 수동(49), 수향(12)으로 분류하였으며, 김철관(1999a)은 수형, 수위, 수동, 장향으로 분류하였다.

33) 비수지신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사이트의 설명을 참고할 수 있다.

<http://cafe.daum.net/doghk/FzPa/22?docid=VOXb|FzPa|22|20040310225809&q=%BA%F1%BC%F6%C1%F6%BD%C5%C8%A3&srchid=CCBVOXb|FzPa|22|20040310225809>

34) 윤병천, “한국수화의 비수지신호에 대한 언어학적 특성 연구”, 박사학위논문(대구대학교, 2003).

35) 수화의 비수지신호란 눈 또는 눈동자의 움직임, 안면 근육·입술·코·머리·고개·턱·목·목 등의 움직임을 통해 수화 어휘표현상의 크고 작음 긴장도와 강하고 약함과 빠름과 느림 그리고 처짐 등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처럼 농인의 수화에서 비수지신호는 의사소통 장면이나 문장의 내용을 수화로 표현할 때나 동영상으로 그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어떤 상황인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의미를 전달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으로서 관용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 농사회가 독특한 농문화를 형성하고 살아간다고는 해도 크게 한국이라는 지역사회 안에 함께 살아가고 있다³⁶⁾.

한국수화 성경 또한 수화 성경 어휘집이나 수화 성경 책자 방식에 의존하는 것은 정확한 내용 전달에 한계가 있으므로 DVD나 CD 등의 시각을 통한 영상을 이용하여 얼굴 표정과 몸동작을 보면서 이해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동영상으로 된 수화 성경이 필요성은 아주 절실하다.

9. 나가는 말

본고에서 한국 수화의 특징을 살펴보고 성경을 실제로 수화로 번역해 보았다. 특히 수화를 동영상으로 표현할 때에는 비수지신호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시도는 앞으로 성경을 실제로 번역하게 될 때에 중요한 논의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어떤 번역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성서학자와 수화 연구가 사이에 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성경 원문의 의미와 수화를 실제로 사용하는 농인들의 수어, 이 두 가지가 최종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영어 성경이 필요하듯이 농인들을 위해, 농인 가족들을 위해, 수화를 통해 농인을 위한 전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농인과 함께하는 예배와 성경 공부를 위해, 올바른 수화 통역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농인 목회자 양성을 위해, 그리고 농인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효과적으로 시키기 위해, 또한 한국에 이주해서 사는 외국 농인들 등 많고 많은 이들을 위해 농인들의 모국어로 번역된 동영상 수화 성경이 필요하다.

한국교회는 농인들에게 관심은 있었으나 수화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농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하는 일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농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닫혀 있다. 수화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들에게 한국어는 따로 배워야 하는 언어가 된다. 모든 농인들이 우리 한글을 완전히 모른다는 것은 아니다. 농인사회에도 농인들이 자라온 환경에 따라 수화를 아는 농인과 수화를 모르는 농인, 한글을 어느 정도 아는 농인과 한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농인들, 이렇게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동영상 수화 성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 농인들 가운데 문자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일부이다. 문자언어를 읽을 수 있는 농인들은 문자언어를 통해서 성경을 읽을 수

36) 이정옥, “한국수화 관용표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나사렛대학교, 2005).

있지만, 많은 농인들이 문자언어로 된 성경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의 농인들은 아직 대부분 문자언어의 영역 밖에 있고, 복음의 영역 밖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수화 성경의 번역은 매우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된다.

백 삼십여 년 전 초기의 한국어 성경 번역이 문맹률을 크게 낮추었듯이 수화 성경의 번역 또한 수화문맹률을 크게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전파가 크게 가속될 것이며, 한국 수화의 통일과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Keywords)

수화언어, 한국 수화, 한국 수화 성경, 한국 농인, 한국어 문법식 수화.

Sign Language, Korean Sign Language, Korean Sign Language Bible, Deaf in Korea, Signed Korean.

(투고 일자: 2009. 3. 23, 심사 일자: 2009. 9. 7, 게재 확정 일자: 2009. 9. 7.)

<참고문헌>(References)

- 강주해, 『농아인 그는 누구인가』, 서울: 농아사회정보원, 2002.
- 강창욱, “문법수화가 언어인가에 대한 토론”, 「수화언어의 미래를 생각하는 세미나」, 제2회 공개연구발표회, 한국수화연구회, 2000, 27-30.
- 김병하, 『특수교육의 역사적 이해』, 서울: 형설출판사, 1989.
- 김병하, 『농교육의 역사, 농아인과 사회(수화통역사 인증시험 준비 지침서)』, 한국농아인협회, 1999, 55-76.
- 김승국, “한국수화의 심리언어학적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1983.
- 변지원, “자연수화의 문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1992.
- 배둘연, “수화에 대한 청각장애학생과 교사 및 부모의 태도 연구”, 석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2001.
- 아베야스시, “농인의 언어적 권리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2003.
- 안영희, “한국수화 성경의 필요성”, 「성서한국」 54:1 (2008 봄), 7-10.
- 안성우, “문법수화가 언어인가”, 「난청과 언어장애 연구」, 20:2 (1997), 51-67.
- 윤병천, “한국수화의 비수지신호에 대한 언어학적 특성 연구”, 박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2003.
- 이정옥, “한국수화 관용표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석사학위 논문, 나사렛대학교, 2005.
- 이용우, 박미혜(역), 『구미농교육통사』, 서울: 한국청각언어교육연구회, 2000.
- 이와이 외 편역, 『수화의 사회적 인식전환을 위한 농문화의 이해』, 서울: 농아사회정보원, 2002.
- 영락농아인교회50년사편찬위원회, 『교회50년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락농아인교회, 2001.
- 최성규, 『장애아동 언어지도』, 대구: 한국언어치료학회, 2001.
- 한국농아인협회 선언문, “수화는 언어다”, 서울: 한국농아인협회 2004 기자회견 자료집.
- 한국표준수화 규범 제정 추진위원회, 『한국 수화 문형사전』, 국립국어원 한국농아인협회, 2007.
- Baker, C., and Battison, R., *Sign Language and the Deaf community*, National Association of the Deaf, 1993.
- Fromkin, V., Rodman, R., *An introduction to Language*, Harcourt Brace, 1993.
- Geertz, N.,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New York: Basic Books, 1973.
- Groce, N. E., 『마서즈 비니어드 섬 사람들은 수화로 말한다』, 박승희 역, 서울: 한길사, 1985.

- Jack Gannon, *Deaf Henitage*, Silver Spring: National Association of the Deaf, 1981.
- Klima, E. S., and Bellugi, U., *The signs of Language*, Cambridge: Harvard Universiyy Press, 1979.
- Liddell, s.k., *Non-manual signals in American Sign Language: A Many Layered System*, Paper Presented at the National Symposium. on Sign Language Research and Teaching, Chicago, 1977.
- William, C. Stokoe, *Sign Language. Structure: An Outline of the Visual Communication Systems of the American Deaf*, Linstok Press, 1960.
- Wilcox, S., *Foreign Language requirement: Why net American Sign Language?* *ERIC Digest*, Washington: ERIC Clearinghouse on Language and Linguistics, 1989.
- Wilcox, S., Feyton. J., “American Sign Language as a Foreign Language”, *ERIC Digest*, Washington: ERIC Clearinghouse on Language and Linguistics, 1999.

<Abstract>

Feature of Korean Sign Language and Practice of the Sign Language Bible Translation

Prof. Young-Hoe Ahn
(Korea Nazarene University)

There was a story of Martha's Vineyard (an island located in the south of Boston in the U.S.) from 17th century to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in the United States. Unlike most Deaf's experiences in the modern society, the Deaf in Martha's Vineyard did not consider themselves as handicapped or isolated group of people, rather wholly integrated into the island's society's politics · culture · jobs · churches · social life · leisure.

In the island, both hearing people (a person who hear and speak) and Deaf people had grown by using sign language and this specific sociolinguistic adaptation means that there was any hindrance in communication between the hearing and the Deaf.

All people lived in the island were able to communicate by sign language and the Deaf had been wholly integrated into the society for around two hundred years while the hearing used multi language, English and sign language. Then, how it would be possible to let Deaf who can neither hear nor speak believe in good new of Jesus and have joy of God? How could pass on such sweet, profundity, and grace of God's words to Deaf under environment without any hindrance of communication? The Deaf, who neither hear nor speak, uses sign language to praise God, and the language is prepared by God specially for the Deaf. While various types of handicapped people gather and talk, a Deaf, herself often feel isolated since she can not hear and not even understand what they talk about.

“So then faith cometh by hearing, and hearing by the word of God.” - Rome 10:17. However, for the Deaf “faith cometh by seeing, and speaking with hands by the Word of God.”

Deaf neither hear nor give a word because they do not hear and speak. For that reason, Deaf are the most difficult handicapped for evangelization. Due to such

difficulty, evangelization for Deaf are behind that of for blind. Churches in Korea have had concern over Deaf, yet still the word of God has not opened to the Deaf in Korea. In order to make Deaf to understand bible, the bible has to be translated into sign language as soon as possible and, thus, open up a path for Deaf to believe in God.